

SKT, 유심해킹에 과징금 1347억 적자 불가피… 3분기 실적 ‘먹구름’

증권가, 3분기 영업이익 450억 전망 추가, 1% 미만 ↓… 이미 악재 반영 전문가 “불확실성 해소… 매수 합리적” SKT, 충격에도 AI 인프라 확대 총력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일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증권가는 “이미 시장에서 악재를 소화한 만큼 주가는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3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역대급 과징금 폭탄을 맞은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 등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692억원), 메타(308억원)에 부과했던 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이 금액이 3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하고, 회수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증권가가 전망했던 3분기 영업이익 450억원 수준을 감안하면, 이번 과징금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사실상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충격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SK텔레콤은 이미 2분기에도 유심 무상교체, 대리점 보상 등으로 2500억원을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 급감한 바 있다. 이때문에 올해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과징금과 요금 할인·위



서울시내 한 SKT 직영점에서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 상담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약금 면제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1조8000억원)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SK텔레콤도 컨퍼런스콜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실적 영향을 고려하면 배당 정책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가는 비교적 차분하다. 과징금이 발표된 직후에도 주가는 1% 미만 하락에 그쳤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시장에서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며 “높은 배당수익률(6.4%)과 내년 실적 정상화를 고려하면 매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자임에도, 개인정보위가 구글·메타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다. 실제 미국 T모바일은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216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고, AT&T도 178억원에 그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를 본 당사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라며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도 미국 T모바일이 200억원대 과징금을 받는 수준이었는데, SK텔레콤에 1300억원 이상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보안 조치를 취했는지, 또 사고 이후 고객 보호를 위해 어떤 보상책을 마련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벌금 폭탄’ 위주로만 접근하면 기업은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정보보호 투자나 보안 고도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과징금 충격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확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에 건립 중인 ‘SK AI데이터센터’를 그룹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밀어붙이며, 최신 GPU 6만장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산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향후 서울 구로까지 거점을 넓혀 총 300MW 이상 용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AI 기업과 생태계를 연결하는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확산에 지상 인프라 한계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경쟁

AI 수요 폭증에 전력 年 최대 22% ↑ 우주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등 장점 美·EU·中 등 실증 단계로 전환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토지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상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우주 데이터센터가 떠오르고 있다.

31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최근 발간한 ‘AI·ICT 브리프(2025-30호)’ 보고서에 따르면, AI 연산 수요 폭증으로 인해 2026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일본 전체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1000테라와트시(TWh)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030년까지는 연간 19~22% 늘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고성능 AI 연산을 위한 냉각 시스템 가동으로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전력 소모량이 50% 이상 증가해 운영 비용이 급증하고,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적절한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지상과 달리 24시간 연속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 대기와 구름이 햇빛을 차단하지 않아 지상 대비 5배 높은 발전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우주의 극저온 진공 환경을 활용한 자연 냉각 시스템을 통해 전력효율지수(PUE) 1.05 수준의 초고효율 냉각도 가능하다.

아울러 400km 저궤도에서 빛의 전송 속도가 광섬유보다 50% 빨라 장거리 통신 지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사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확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지역 주민 반대나 환경 규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여지도 적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민간 스타트업과 정부 기관이 앞다퉈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제미니에 의해 생성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래형 데이터센터 모습.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 벤처 투자기관인 인큐텔(In-Q-Tel)은 우주 데이터센터 스타트업인 스타클라우드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위성 제작 기업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의 타당성 연구 프로젝트에 200만 유로(약 32억5270만원)를 지원하며 정부 주도로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 청두귀성항공우주기술은 지난 5월 12개 AI 위성을 발사하며, 2800개 위성 규모의 우주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IITP는 “우주 데이터센터가 이론적 연구 단계에서 실제 발사와 운영을 통한 실증 단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중국 저장연구소와 청두귀성항공우주기술의 협력은 공공 연구역량과 민간 실행력을 결합한 사례로, 한국도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주 데이터센터는 발사 비용, 우주 환경에서의 냉각 시스템, 유지 보수의 복잡성,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등 기술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국내외 제휴사 10곳과 ‘AI 대중화’ 앞장

‘AI 유니버스’ 출범

LG유플러스가 국내외 인공지능(AI)분야 기업·단체와 손잡고 ‘AI 유니버스’를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을 제공해 AI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에서 AI 유니버스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와 과실연 AI미래포럼, 유독픽AI에 참여하는 라이너·캔바코리아·웹도·모블다·튜링·동아시아인스·아티피셜 소사이티·플랭·코멘토·키네마스터 등 국내외 제휴사 10곳이 참석했다.

AI 유니버스는 참여 기관·기업들이 각자의 서비스와 역량을 활용해 AI 교육,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체다. LG유플러



29일 서울 강남 일상비일상의틈에서 진행된 AI 유니버스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LG유플러스 정해운 마케팅그룹장(왼쪽에서 여덟번째)과 과실연 AI미래포럼 류정혜 공동의장(왼쪽에서 열한번째), AI미래포럼 김승일 대표의장(왼쪽에서 열두번째)을 비롯한 제휴사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스는 자사 AI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캠페인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달 출시한 구독형 AI 서비스 ‘유독픽 AI’를 중심으로 AI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독픽 AI는 원하는 AI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2만 명을 확보했다. 현재 가장 많이 선택된 서비스는 검색 정확도가 높은 ‘라이너’와 디자인 지원 서비스 ‘캔바’다.

과실연 AI미래포럼은 AI 강연·토론회 콘서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맡고, 제휴사들은 각자 서비스와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대중에게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AI 유니버스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통해 AI 리더십 제고 및 사회적 인식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KT, 멤버십 고객 생활 밀착형 혜택 강화

케мп페, 한달 만에 이용 100만건 돌파 여행·나들이 맞춤 ‘달달혜택’ 눈길

KT가 가을 시즌을 맞아 멤버십 고객 대상 혜택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연·영화 초청, 외식·쇼핑 할인, 여행·레저 혜택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8월 처음 선보인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케мп페)’는 한 달 만에 이용 건수 100만 건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었다. Y위터페스티벌, ‘보야지 투자라섬(Voyage to Jarasum)’ 초청 등 차별화된 문화 혜택과 굿네치킨·파파존스 할인 이벤트가 인기를 끌었다.

KT는 9월 케мп페에서 혜택 규모를 한층 확대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인기 공연 ‘태양의 서커스 ’쿠자‘ 초청(200명), 영화 ‘어쩔수가없다’ 시사회 초청(1만 명)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호응이 높았던 올리브영·다이소·네이버페이·스타벅스 무료 쿠폰, ‘쇼핑라운지’ 최대 75% 할인, 커피·영화 무료 쿠폰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 멤버십 고객이라면 모든 혜택을 중복해 이용할 수 있다.

9월 15일부터 운영되는 ‘달달혜택’은 여행과 나들이에 맞춘 구성이 눈에 띈다. ‘달달초이스’에서는 파riba게프 4000원 할인, 폴 바셋 커피 50% 할인, 배달의민족 치킨 7000원 할인, 이디야 음료 50% 할인, 도미노피자 반값 할인, 롯데시네마 7000원 예매권 등이 제공된다.

‘달달스페셜’에서는 아고다·롯데렌터카·신세계면세점 등 생활·여행 제휴 할인 쿠폰을, ‘달달찬스’에서는 스타벅스 텀블러, 다이소 상품권, 롯데시네마 가족관람권 등을 추첨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